



광명희 단장은 ... 1955년 강원도 동해시에서 태어났다. 2000년 포교사 5기로 품수했고 조계사 수행상담실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2003년 동국대 불교대학원2기 불교학과 2년을 수료했고, 2004년과 2010년 포교사단 부단장을, 2006년과 2012년 수석부단장을 지냈다. 2007년 사단법인 좋은인연 사무국장에 취임했으며 2013년에는 좋은인연 이사장이 되었다. 서울시 환경감시원, 서울시 성북구 복지위원을 지냈으며 사회복지사 2급과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마하 반야바라밀~” 가사에 맞춰 흥겹게 리듬을 타는 나무젓가락이 장단을 맞춘다. 음정도 고르지 않고 제멋대로지만 어쩔지 어쩔을 들썩이게 하는 흥이 노래에 실려 있다. “아버님 뭐하세요? 누가 반야심경에 곡조를 붙여 부른대요?” “이렇게 하니가 외우기도 편하고 안 신나. 듣는 부처님도 신날 거다.” 올 1월 1일 제 8대 조계종 포교사단장에 취임한 광명희(법명 문수행, 58) 단장이 옛날을 회상했다.

포교대상 1호는 시아버지 “아버님 많이 아프세요? 같이 반야심경 할까요?” 고관절이 깨진 후 앓아눕게 된 시아버지를 일으키던 문수행 보살이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장단을 맞추기 시작한다. 시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예의 그 곡조다. “마하 반야바라 밀다심경 판 자재 보살~” 며느리의 손장단을 박자삼아 270음을 다 부른 시아버지가 다시 자리에 눕는다. 다음날 새벽, 시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버님이 불교신자는 아니셨지만 적적하실까봐 사경을 추천해 드렸죠. 그 후로 노인정에 있으시다가도 사경이 하고 싶으신지 집으로 오시곤 하셨어요. 그 정도로 신심이 강하셨죠. 신문지를 공책삼아 연습한 걸로 따지면 아마 한 트럭은 족히 넘을 거예요.” 나이 여든에 시작한 사경에 재미를 붙인 시아버지는 금강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 사경하는 경전마다 모두 외워버렸다. 그날 일은 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공부를 점검해주는 등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누구보다 대화를 많이 했다. 모든 일상 대화에 경구가 녹아 있을 정도였다. 떠나기 전 며느리 품에 안긴 시아버지는 연신 고맙다고 했다. 이리저리 불교 공부하러 다닌다고 많은 시간을 시아버지 곁에 있지 못한 며느리는 해드린 것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리 한 쪽이 짧은 장애를 갖고 계신 시아버지였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와주시려는 모습은 그대로 며느리에게 경책이 됐다. 농으로라도 남이 들으면 섭섭할 소리를 전혀 입에 담지 않았



광 단장은 매주 성북구 안암동 '노인의 집'에 가서 반찬 만들기 봉사를 한다.

던 너그러운 성격 또한 반발을 덕이었다. 돌아보니 부처님과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이 맞는 말씀만 한다”며 고개를 끄덕이던 시아버지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문수행 보살은 시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불교공부를 되돌아보게 됐다. 기도입재를 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다는 것만으로 뿌듯해 했지만, 정작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절에 다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아버지는 불교를 알게 되어 생긴 즐거움을 돌아가실 때까지 지냈던 분이였다. 문수행 보살이 포교사가 된 후 처음으로 불법을 전해준 사람은 시아버지였던 것이다.

최초의 여성 포교사단장 되다 광명희 제 8대 포교사단장은 최초의 여성 포교사단장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서울, 부산, 전북, 강원 등 전국 지역단 13곳과, 5천명의 포교사들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꾸준히 불법 홍보에 헌신한 것 외에도 포교사단의 활성화를 위해 힘쓴 공로가 인정되어 임명됐다. “조직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 자리는 몸소 앞장서서 실천해 보여주는 자리지, 명예를 좇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위해 만난 광명희 단장은 조직의 수장이라는 ‘권위’ 보다는 인정받은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수더분한 모습이었다. 한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 게서 흔히 느껴지는 고집이 우연찮게라도 말에 묻어나오는 법이 없었다. 말은 유순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정갈했으며 표정은 편안했다. 어떻게 펴뻐했던 주부가 전국 단위의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을까. 광 단장이 본격적으로 불교 포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조계사 불교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다. 마흔이 돼서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자 마음먹고 들어간 불교대학과정을 이수하고 난 뒤, 자신도 깨닫고 타인도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자각(自覺)의 마음으로 포교사 시험을 쳤다. 2000년, 포교사단이 출범한 해였다. 그는 그 해 포교사 품수를 받았다. 재미있는 우연이었다. 조계사 수행상담실에서 상담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 조계종 포교사단에서 활동하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다. 불



올해 1월 부터 제8대 포교사단장이 된 광 단장이 포교원장 지원스님으로부터 단기를 전해받고 있다.

전법일기

‘초코파이’ 보다 맛난 ‘부처님 법과(法藥)’

2012년 말 TV에서는 초코파이 광고가 흘러나왔다. 교회에 간 군장병이 줄을 서서 초코파이를 받는 장면이었다. 초코파이를 나눠받은 그 병사가 목사에게 고백한다. “저 사실 불교예요...”

얼마나 장병들이 간식을 좋아하면 간식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는 모습까지 TV에 나올까.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받은 장병들은 광고 후반에 ‘상당은 두 개를 준대...’라며 좌절하는 유머러스한 장면을 연출하기까지 한다.

사실 바깥 군것질 거리를 접하기 힘든 훈련병들에게 종교행사 이후 맛볼 수 있는 간식은 생각보다 더 큰 관심사다.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초코파이 광고처럼 간식에 따라 군대 내에서 종교를 선택하는 장병들이 다수 있다.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군대의 훈련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장병들을 위로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먹거리에 각 종교마다 종교행사 후 지급되는 간식에 많은 신경을 쓴다.

그러나 간식에 대한 비용을 각 종교시설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종교마다 재정형편에 따라 간식의 양과 질이 큰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군대 내에서는 소위 ‘간식전쟁’이 벌어진다. 간식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배급하는 것까지 종교간 경쟁이 일종의 전쟁과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간식전쟁’은 문제가 많다. 종교적 가르침과 예례를 통한 마음 수양이라는 종교행사 본연의 모습을 퇴색시키고 종교행사를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즐겁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로 굳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군종장교들이 모여 군종부 차원으로 간식을 통일한 적이 있다. 훈련병들에게 각 종교행사 이후 초코



그림·박구원

파이 두 개와 음료수 한 개로 통일한 것이다. 물질적인 면보다 종교 본연의 모습과 의미에 충실하기 위함이었다. 업체도 통일해 공동구매를 실시했다.

효과는 컸다. 병사들에게 주는 먹을거리가 다소 줄긴 했지만 간식에 대한 경쟁이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종교행사 콘텐츠를 충실히 하는데 힘을 기울이게 됐다. 훈련병들이 간식에만 매달리지 않고 법회와 법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종교 경쟁을 줄인 것은 훈련병들에게만 일어난 변화가 아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회의 콘텐츠와 법문 내용을 더욱 충실히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 먹거리만이 아니어도 내용으로서도 병사들에게 또 다른 위안과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작년 여름의 일이다. 최정방 사단에 오자마자 격오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만나고, 지형과 특성

을 익힐 겸 사단의 전 GOP와 GP를 돌았다. 이곳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소위 ‘황금마차’라고 불리는 이동식 PX를 제외하고는 간식거리를 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군종장교들은 여러 가지 먹거리를 사들고 위문을 하곤 한다.

위문품은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 작년 여름은 어느 해보다 더웠다. 더위도 더워지만 이른바 황금마차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희귀 품목이 바로 아이스크림이어서 인기가 좋았다. 병사들에게 “법사님이 너희들을 만나러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설레임을 사왔다”고 농담으로 교육을 시작했던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법회를 진행하다보니 간식보다 부처님 가르침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병사들이 많았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이들에게는 먹는 간식이나 부처님 법이나 접하기가 어려운 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손오공처럼 몸을 여러 개로 나누어 이곳 저곳에서 힘겨워하는 장병들 앞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했다.

힘든 군생활에서 간식은 간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병사들이 휴대하기 편하고 율할 때 먹으면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는 초콜렛이 함유된 초코파이가 절대적인 인기를 얻는 것이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장병들이 힘들 때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감로수와 같은, 초코파이보다 더 달고 오래가는 ‘마음의 간식’을 마련하는데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정 군승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Advertisement for '2014 신상품 삼환양초' (2014 New Products Samhwan Yangcho) from www.shcandle.com. The ad features a large collection of decorative candles with various patterns like butterflies, flowers, and traditional motifs. It lists numerous candle models with their dimensions and prices, categorized into '신제품' (New Products), '국산향' (Domestic Fragrance), and '수입향' (Imported Fragrance). The background is a light, textured pattern.